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등 ‘안전’ 특화… 韓 ‘블루버드’ 목표”

(美 100년 넘은 스쿨버스 제조사)

Q 르포

통학버스 제조사 ‘아이버스’

한정된 韓 시장서 소수 제조사 경쟁
中 전기차까지 가세하며 경쟁 심화

자동 발판·경광등 등 혁신 시스템
車 기술기·출발까지 통합제어 적용
동남아 수출·IPO 등으로 성장 계획

‘어, 어, 어, 넘어질 것 같은데…’

전북 전주 덕진구에 있는 아이버스 본사. 이 회사 강주일 대표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자동차 검사 시설에서 직접 제작한 전기스쿨버스를 놓고 ‘최대안전 경사각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의 걱정은 기우였다. 버스 차체가 꽤 기울어졌는데도 절대 넘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타는 버스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버스를 만들 것이다.”

‘아이버스’. 회사명 그대로 아이들이 타는 버스를 만드는 회사다. 현대차가 제조해 25인승 통학버스를 공급,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아이버스를 포함한 2개의 중소기업이 나머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수요가 한정돼 있기도 하고 진입 장벽도 높다. 그만큼 시장 플레이어가 적다.



강주일 대표가 김제 신공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근엔 이런 틈새를 비집고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와 가뜩이나 제한된 시장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그동안 정체돼 있다가 지난해 1월부터 신고가 불가능해진 디젤차가 빠지고 전기차로 점점 대체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4년 2000억원대였던 시장은 올해엔 약 3000억원대로 늘었다. EV전기통학버스 6개 차종, 11개 모델을 중심으로 내년엔 1500억원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2028년에는 기업공개(IPO)에 도전할 것이다.”

강 대표는 2003년 아이버스의 전신인 성진전자를 창업했다. 이듬해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현대차에 어린이보호차시

스템을 OEM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노비즈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아이버스의 통학버스차 생산 능력은 하루 8대, 한달 약 200대 정도다. 물론 차량 본체는 현대차 등을 통해 납품 받는다. 전주 본사 외에 최근엔 전북 김제 백구농공단지내에 5000평 규모의 신공장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하루 생산대수는 15대까지 늘어나게 됐다.

강 대표는 교통안전공단에 10년 가량 근무하며 차량 안전, 안전 운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하차확인장치, 3점식 어린이 전용 시트, 통학버스 안전을 관리하는 차량 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특허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강 대표는 “잡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가 전북 전주 본사에서 경사각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있는 하차확인장치는 아이를 두고 차문을 오랫동안 잠가놔 안타깝게도 질식사하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도록 도와준다”면서 “2점식이 아닌 3점식 어린이 전용 시트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앉았을 때 목이 조이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버스가 특허받은 ‘통학버스 자동 제어 통합 시스템’은 GPS 전자동 제어를 통해 자동 발판, 스톱표지판, 표시등을 별도 조작 없이 전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차가 멈춘 후 출발할때까지 운전사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황색표시등이 1분에 60~120회 점멸하면서 승객들

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강 대표는 “어린이통학버스는 현재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의무화돼 있어 무조건 장착해야 한다. 단 운행기록 보고는 의무화되지 않아 이를 의무화해야 좀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버스는 소형·대형버스 개조를 위한 조립라인 뿐만 아니라 자체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있다. 이때문에 같은 모델의 경우 첫 차만 별도로 인증을 받은 후 2호차부터는 자체 검사, 인증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양산 가능한 차량은 스타리아 11인승부터 46인승 대형버스까지 다양하다.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차량도 추가 개발 중이다. 또 현재 중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 보호차량도 타깃이다.

“미국에는 100년이 넘는 스쿨버스 제조사 블루버드가 있다. ‘한국의 블루버드’가 우리의 목표다. 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통학버스차를 수출하는 것도 목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에게도 IPO를 통해 기회를 줄 것이다. 오너만 부자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협력사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전주(전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타트업·대기업 협업으로 혁신 빛났다

중기부, ‘민관협력 성과공유회’
스타트업 9곳에 중기부 장관상
‘투자 유치 풀 추천’ 등 혜택도

에코프로와 엠버로드가 협력한 ‘인공지능(AI) 기반 이차전지 제조 공정’, CJ ENM과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이 개발한 고단백·저당질 셰이크, 우미건설과 포비콘의 AI 기반 공사 건적 효율화 플랫폼 등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우수 사례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 더블유디지에서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를 열고 통합경진대회 결선 우수 스타트업과 협업대기업을 선정·시상했다.

올해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120개사 가운데 신제품·서비스 개발·적용 등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엠버로드 등 스타트업 9개사에게 중기부 장관상과 상금이 돌아갔다.

엠버로드가 에코프로의 제안으로 개발한 공정 효율화 솔루션은 연간 약 55억원의 재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솔루션은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내 추가 공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은 개발한 셰이크 판도를 위해 CJ ENM의 마케팅·판매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CJ ENM으로부터 30억원의 직접 투자도 유치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AI 환율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함께 한 농협은행과 스위치원, ‘AIoT 기반 안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업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오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업 성과가 나왔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 생산성 증대,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 효율화와 같은 실체적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기업 전반에 확산하고 우리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재생펄프로 ESG 경영 강화

우유팩 재활용 펄프 ‘GR 인증’ 획득

한솔제지가 우유팩을 재활용해 생산한 펄프 제품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GR(Good Recycled) 인증’을 획득했다.

16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일반 종이 제품이 아닌 재활용 원료에 대해 GR 인증을 획득한 것은 제지업계에서 한솔제지가 처음이다. 이번 인증으로 한솔제지는 자원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친환경 원료 생산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인증받은 재생펄프는 시중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우유팩을 질량 기준 50% 이상 투입해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로 재활용한 제품으로 천연펄프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일반 우유팩의 경우 23년 기준 재

활용률이 22.8%에 불과해 철이나 알루미늄캔, 유리병 등 다른 소재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R인증은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한솔제지의 우유팩 재활용 펄프는 우유팩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종이 제품 생산시 고품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제지부문에서 최초로 원료 인증으로서의 적정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GR인증은 1997년 도입된 정부 제도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안정성·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만 부여한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GR 인증 획득은 한솔제지의 친환경 기술 역량과 ESG 경영 의지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설립때 창업 제외기업, 7년내 요건 충족 시 ‘창업기업’ 인정

중기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설립 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나중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도 창업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사

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개설이 잦은 창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7년 내 창업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4호·5호)를 해소하면, 해소일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A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의 B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정 전에는 A 사업을 접더라도 B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 사업을 폐업할 때 B 사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그밖에 ▲법인과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소유하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신생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사업 개시 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 등기 시로 판단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車 부품사 경쟁력 위해 1000억 보증

현대차·기아·KB국민은행과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현대자동차, 기아, 국민은행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보는 현대차, 기아, KB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위축,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인 수요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현대차·기아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국민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15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